

# 폭염 속 공사장 소음·분진...주민들 아우성

### 광주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현장 인근 "창문도 못 연다" 호소 심각한 교통 불편·조망권 침해에 공사 중단 촉구 등 민원 속출

광주 곳곳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며 소음과 분진, 일조권 침해,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웃도는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 산수동 장원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이날 초(유) 명지개발 때문에 교통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명지개발은 올해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산수동 16-1번지 일원(대지면적 1만 4060㎡)에 15층짜리 6개동 규모 아파트 270세대를 짓고 있다.

아파트 건설 현장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요일에 공사를 진행해 휴식을 방해하고, 공사 가림막을 뚫고 분

진까지 집안으로 날아온다는 내용이다. 또 설치된 가림막이 주민 주차공간을 침해하고, 공사장 진입로도 주택가 골목길과 이어져 극심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건설사측에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주민들은 동구와 국토교통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동구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주간 소음기준 '65데시벨(dB)'을 초과했고, 추락방지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지난 10-15일 5일간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현장조사를 통해 건설사 측이 주차 부지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등 주민 갈등을 중재했다.

무등산 조망권이 강점인 광주 동구 주민들은 곳곳에 들어선 고층 오피스텔 때문에 일조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동구 동명동 주민들은 2020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동구 동명동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성암홀딩스가 옛 계림극장 자리에 조성하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20층 1개동(대지면적 1898㎡) 252세대가 들어선다. 부지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7층으로, 동명동-대인동 주민들은 이 오피스텔 때문에 무등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동명동 주민 김모(42)씨는 "오피스텔 부지가 계림5거리에 맞닿아 있어 20층 건물이 완공되면 무등산을 가려 답답한 느낌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 뜬 금 없이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인-허가 조건이 맞으면

구정에서는 승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공사 현장에서 소음·분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구 화정동 주민들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도나우프리 아파트(지하 5층-지상 27층 2개동 총 371세대) 공사 때문에 이날 초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었다.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만 되면 덩크프럭이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편도 2차선 중 1개 차선을 가로막고 대기한 탓이다. 이곳은 화정4거리에서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4거리로 이어지는 화운로 중간 지점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지이다.

서구 교통과·건축과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폐기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공사장 내에서 작업이 어렵자 도로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광주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는 42개 단지 2만1362세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 감축

### 교육부 시행령 의결...폐원 기준도 시·도교육감이 정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폐원 기준도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되고,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육 당국의 처분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 처분을 받는다.

시정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6개월-2년간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는 초·중·고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기준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이 필요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11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 기준이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아도 무상급식

### 도교육청 9월부터 시행

전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만 5세(2013년도 출생) 원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전남지역 102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 31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9~12월 점심 급식 일수를 85일로 산정해 사업비 약 5억 88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다.

급식 단가는 1식에 2200원으로, 1명

당 4개월간 18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비로 급식비를 충당했던 공립유치원과 달리, 운영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로 무상급식이 어려울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받고 있다.

급식비가 지원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유치원 측도 누리과정비를 다른 교육 활동에 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분격 폭염에 엔진 과열

### 전남 곳곳 잇단 차량 화재

분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전남 지역 곳곳에서 엔진 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잇따랐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영암군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 차량에 불이나 14분여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해 엔진 밑에 있는 기름 찌꺼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순천시 한 도로에서도 주행 중인 승용 차량에 불이 붙었다. 당국은 엔진 부근 플라스틱 등이 불에 탄 것을 근거로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에는 강진군 남해안고속도로 장동1터널에서 SUV가 앞서가는 승용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로 SUV 엔진룸에 불이 붙었지만, 운전자가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앞서 오전 11시께에는 장성군 황룡면 웅벽 공사 현장에서 1t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됐다. 공사 현장에서 쓰던 발전기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모르고 용접을 하다 스파크가 튀면서 주변에 있던 차량에 불이 붙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수량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광산구 소촌동 민간공원 토지 소유자들

## "주민 동의없는 수량공원 조성 반대"

공원일몰제 시행 1년 여를 앞두고 민간공원 토지소유자들이 아파트 건립 중심의 특례사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5년간 재산권을 침해 당한 것도 역술한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수량공원(예정) 조성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가 건설사와 함께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실상 민간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광주시는 토지소유주들과도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일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29만6211㎡)

토지 소유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 부지는 빠르면 오는 9월 광주시와 건설사간 민간공원 특례협약을 통해 부지 중 16.9%(4만9972㎡)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사는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토지 감정 평가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25곳의 모든 공원을 광주시가 매입하려면 2조 8000억원이 든다"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헬스클럽 수건 왜 많이 써"

### 회원 밀친 관장 폭행 혐의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30일 수건을 많이 사용한다며 회원을 밀친 헬스클럽 관장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헬스클럽에서 회원 이모(여·51)씨를 밀친 혐의다.

A씨는 이씨가 헬스클럽 내 비치된 수건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나기라, 다시는 오지말라"며 팔을 잡아 끌고 어깨 등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금 보관한 당구장만 골라 36곳서 1200만원 텨 30대 최고량



○...심야시간 영입이 종료된 당구장만 노려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철창형.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최모(35)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의 한 당구장을 시작으로 지난 23일

까지 광주 시내 당구장 36곳에서 1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당구장을 자주 찾았는데 주인들이 영업을 마친 뒤 현금을 가져가지 않고 카운터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